

15세기 후반 문단의 추이와 估畢齋 金宗直

이 종 목 (서울대)

1. 서론
2. 15세기 후반 문단의 추이
3. 15세기 후반 관각시의 성격과 김종직의 개성
4. 김종직 한시의 연원과 15세기 후반 문단에서의 영향
5. 결론

1. 서론

估畢齋 金宗直(1431-1492)은 조선 전기 문학사에서 걸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¹⁾ 그러나 김종직이 당대 문단에서 차지한 위상과 그의 문학이 후대 문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 예는 많지 않다. 본고는 15세기 문단의 추이에서 김종직이 차지한 위상을 먼저 살펴보고, 김종직이 이룩한 문학적 성취를 당대 시풍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김종직의 문학세계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이 절로 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2. 15세기 후반 문단의 추이

김종직이 출사하기 전인 세조대 이전의 문단은 安平大君을 맹주로 하는

1)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박선정, 『점필재 김종직 문학 연구』(이우출판사, 1988); 김영봉의 『김종직 시문학 연구』(이회, 2000)을 들 수 있다.

집현전의 신진문사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河緯地, 申叔舟, 成三問, 朴彭年, 李塏, 徐居正 등이 안평대군의 측근이 되어 15세기 중반 문단의 우이를 잡았으며, 崔恒, 金守溫, 李石亨, 成任, 姜希顔, 李承召, 任元濬, 姜希孟, 成侃 등도 이들과 지근의 거리에 있으면서 문단의 중추 세력으로 자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여말선초 李穡, 權近 등의 학통을 이어받은 관각의 卞季良과 재야의 柳方善 등의 훈도 아래 양성된 인물들이거니와, 이와 더불어 賜暇讀書制라는 엘리트 코스를 통하여 길러낸 인재들이다. 세종 8년(1426) 사가독서제가 첫 시행된 이래, 신숙주가 세조 1년(1455) 대제학에 오르면서 독서당 출신에 한하여 文衡으로 발탁하는 전례가 생겼으며 讀書堂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문형으로 삼는 전통도 생겨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문단의 중심은 문형이었고, 문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사가독서를 거쳐야 했으며 홍문관이나 예문관에서 응교 등의 핵심적인 벼슬을 역임하여야 하였다. 문형뿐만 아니라 제학, 응교 등 문한의 직임은 독서당 출신에 계만 허용되었다.²⁾ 15세기 후반 이러한 엘리트 코스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관례는 이어졌다.

세종 24년(1442) 사가독서를 받은 박팽년, 이개, 성삼문, 하위지, 신숙주, 이석형, 그리고 문종대 사가독서를 받은 최항, 김수온, 서거정, 李坡, 이승소, 강희맹 등이 이러한 엘리트 코스를 통하여 양성된 문인들이다. 그러나 계유정란에 이은 수양대군의 등극 과정에서 이른바 사육신 그룹이 제거되고, 안평대군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거나 수양대군 쪽으로 줄을 옮겼던 최항, 김수온, 이석형, 성임, 신숙주, 강희안, 서거정, 임원준, 이승소, 강희맹 등이 살아남아 16세기 후반 세조와 성종대 문단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최항은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崔潤德의 손자이며,³⁾ 서거정의 자형이다. 서거정은 權近

2) 사가독서제와 대제학 제도에 대해서는, 줄고,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활동」 (『한국한사연구』 8집, 한국한사학회, 2000, 10)과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3) 최윤덕은 魚變甲의 누이와 혼인하였는데 어변갑의 아들 魚孝瞻, 손자 魚世謙과 魚世恭, 어세겸의 서손 魚叔權 등이 조선전기에 문명이 높았다.

의 외손자로, 문형을 지냈던 權躡에게 처남이 되고 세조대의 실력자 權擘과는 외사촌이 된다. 또 이색의 손자 李季甸은 그의 고종사촌 처남의 혼맥으로 연결된다.⁴⁾ 김수온은 부친 金訓이 李行의 사위이기에, 그 아들 李迹과도 교분이 깊었다. 또 김훈의 동서가 한명회의 부친 韓起이므로 김수온과 韓明澮는 이종간이 된다. 이석형은 태종의 원종공신 李懷林의 아들이며 鄭夢周의 손자 鄭保의 사위이기도 하다. 더욱이 성삼문, 성임과 성간의 집안은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문벌이다.⁵⁾ 또 신숙주의 부친은 변계량의 학술을 정통으로 이은 申樞이며, 尹紹宗, 尹淮, 尹子雲으로 이어지는 명문가와 혼인을 맺었다. 강희안과 강희맹은 姜頴德의 아들이며 姜淮伯의 손자다.⁶⁾ 이들이 15세기 후반 문단의 중심이었거니와, 특히 권근, 변계량, 윤희, 권재, 安止, 鄭麟趾 등을 이어, 신숙주, 최항, 서거정이 차례로 문형을 잡았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문형이 명문가에 의하여 독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문가에 의하여 主文의 직임이 세습되던 관례는 세조대에도 지속되었다. 세조는 집현전을 혁파하면서 사가독서제 역시 중단시켰지만, 문학에 능한 인재가 배양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사가독서제 대신 兼藝文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검예문은 재주 있는 신진들로 하여금 예문관의 직임을 겸하게 하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의 조회 후에는 경서를 찬강하며, 한 달에 2번씩 賦詩하게 한 제도다. 세조8년(1462) 5월 17일 문사 중에 학술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李坡, 金壽寧, 李克墩, 孫舜孝, 魚世謙, 鄭蘭宗, 許琮, 金宗直 등이 검예문으로 선발되었다. 또 세조 10년에는 李淑城, 李陸, 金季昌, 柳允謙, 柳詢, 洪貴達, 李璟全, 成倪, 金紐, 崔淑精 등도 검예

4) 이 점에서 서거정은 李璫, 李隅, 李坡, 李軾, 李隅, 李紆 등 이색의 직손들과도 혼족관계에 있다.

5) 成汝流과 그 아들 成石璘, 成石瑢, 成石珉이 모두 크게 이름을 날렸으며, 성석용의 아들 成達生과 成概, 成煇, 성개의 아들 成勝, 성희의 아들 成聃壽, 成聃年, 成聃命, 성승의 아들 성삼문, 성석인의 아들 成拏과 成抑, 成拔, 성엄의 아들 成念祖, 成奉祖, 成順祖, 성녕조의 아들 成任, 成倪, 成倪, 세조와 동서간인 성봉조의 아들 成傑, 성순조의 아들 成健과 成俊 등 명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물이 이 집안에서 나왔다.

6) 강희맹은 성임과 절친하여 사돈을 맺었으니 성임의 아들 成世明이 강희맹의 사위다. 강석덕의 형 友德의 아들이 姜孟卿이며, 姜渾은 강맹경의 아우 姜叔卿의 손자고, 魚得江이 그 손녀사위다. 다만 이 시기 관각의 문인 중 이승소와 임원준은 그 집안이 대단하지 않다. 임원준의 아들이 任洪이다.

문 문신으로 선발되었다.⁷⁾ 이들이 성종대 문단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 중 어세겸, 홍귀달, 성현 등은 문형을 잡았다.

검예문을 거쳐 문형에 오른 이들 중 상당수가 명문의 후손이다. 어세겸이 문형에 오른 것은 개인적인 능력 외에, 그가 魚變甲의 손자로 魚孝瞻의 아들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어효침의 고모부가 최항의 조부 최운덕이니, 어세겸이 문형을 잡은 것은 최항과 그 처남 서거정의 후광에 힘입었을 것은 분명하다. 성현 집안은 『용재총화』에서 스스로 자랑하였듯이 조선 초기 최고의 문벌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문단에서 주목되는 점은 홍귀달이 문형을 잡았다는 점이다. 홍귀달은 그다지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홍귀달은 缶溪洪氏다. 그 집안은 고려말의 한미한 吏族이었고 조부 洪淳에 이르러 비로소 등 제하였으며 그 처가가 있던 咸昌 東錢村 虎溪에 세거하였다.⁸⁾ 이 집안이 영남의 사족으로 성장한 것은 순전히 홍귀달에 이르러서다. 한미한 홍귀달이 대제학에 오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처음 어세겸의 후임으로 盧公弼이 임명되었으나 그가 시문이 부족하다 하여 성종 23년(1492) 다시 대제학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에 노공필의 부친 盧思愼, 許綜, 유순, 성현, 權健, 申從漢 등과 함께 홍귀달이 물망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정의 대신들은 생각이 서로 달랐는데, 李宜茂, 兪好仁, 權景裕, 金駙孫 등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적극 홍귀달을 지지하였고, 이에 홍귀달이 마침내 대제학에 낙점되었다. 이러한 점은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이 무렵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

7) 이때 검예문문신으로 李坡, 李永垠, 金壽寧, 朴樾, 李克墩, 孫孝舜, 魚世謙, 鄭蘭宗, 閔粹, 鄭孝常, 崔漢良, 李壽男, 金宗運, 許琮, 李孟賢, 朴時衡, 權敬止, 朴時亨, 柳文通, 許紳, 李淑文, 魚世恭 등이 선발되었다. 이들 외에도 趙淑, 李淑城, 李陸, 趙祉, 崔漢良, 金宗, 孫昭, 金季昌, 孫比長, 李則, 柳允謙, 柳詢, 洪貴達, 裴孟厚, 李瓊全, 成侃, 金紐, 崔淑精, 李益培 등이 검예문문신으로 선발된 바 있다. 그런데 세조는 김현전과 함께 사가독서제를 폐지하였는데 『讀書堂先生案』에는 盧思愼, 李叔臧, 任元濬, 魚世謙, 洪貴達, 崔淑精, 李瓊全, 成侃, 安琛, 金訥, 表浴沫 등이 선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허백정집』(『속집』, 『허백정연보』)에는 대제학으로 있던 徐居正이 세조 9년(1463) 金壽寧, 成侃, 盧思愼, 李叔臧, 任元濬, 魚世謙, 鄭蘭宗, 洪貴達, 崔淑精, 李瓊全, 成侃, 安琛 등 12인을 뽑아 사가독서를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들 인물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검예문을 사가독서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8) 이수건, 『영남사립과의 형성』, 영남대출판부, 1979, 89면.

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서거정 이후 이승소와 강희맹, 김종직 등으로 문형이 넘어가는 것이 당시 문단의 순리였겠지만 서거정은 강희맹, 김종직에게 문형이 넘어갈 것을 꺼려서 26년간이나 문형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았다.⁹⁾ 결국 강희맹, 김종직 세대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에게 문형의 자리가 넘어간 것이다. 김종직은 서거정으로 인하여 문단의 영수로 군림하지는 못하였지만, 서거정의 학맥을 계승한 이들이 많지 않았음에 비하여, 김종직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전반 문단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김종직의 제자들이 당대 문단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가독서에 선발된 인원들의 비중에서 절로 증명된다. 성종대 사가독서에 선발된 인원은 40여 명인데,¹⁰⁾ 이중 김종직의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蔡壽, 俞好仁, 曹偉, 楊熙止, 金訢, 表浴沫, 崔溥, 申從溥, 權景裕, 李宜茂, 申用漑, 金駟孫, 姜渾, 權五福, 李宗準, 南袞, 鄭希良, 李龜, 任熙載, 金詮, 李胄, 李穆 등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¹¹⁾ 이들 외에도 상당수가 김종직이나 김종직의 문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金勸은 김담, 김전과 사촌간이고, 洪彥忠은 김종직의 벗인 홍귀달의 아들이다. 朴閔은 신용개의 사위이며, 이의무가 가장 절친하였던 벗 李苻의 아버지다. 또 이행이나 박은은 정희량, 남곤, 權達手, 金千齡 등과 절친한 관계였다. 신광한은 신용개, 신종호와 사촌이다. 또 중종 1년의 사가독서를 받게 되는 인물 중에도 이의무의 아들 이행, 김흔의 아들 金安老 등이 있다. 이처럼 16세기 전반기에 문단의 중심에 오르는 인물조차 상당한 정도까지 김종직의 영향권에 있음을, 엘리트 집단의 현황과 관련하여 확인

9) 『자봉유설』 권4 「官職部」. 실제 서거정이 문형을 맡았던 기간은 20년이다.

10) 성종 7년(1476)의 사가독서에 선발된 인물로는 蔡壽, 權健, 許琛, 俞好仁, 曹偉, 楊熙止 등이 있으며(그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安琛, 金訢, 表浴沫 등이 세조대에 사가독서인으로 선발된 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성종 18년경에는 趙之瑞, 朴增榮, 崔溥, 申從溥, 權景裕, 李承健, 李宜茂, 許輯, 李達善 등이 선발되었다. 그리고 김종직이 죽던 해인 성종 23년(1492) 申用漑, 金駟孫, 姜渾, 崔淑生, 權五福, 李宗準, 李龜, 金勸, 南袞, 成重淹, 鄭希良, 李龜, 任熙載, 洪彥忠, 朴閔, 李希舜, 金詮 등이 선발되었으며, 연산군 초기에 李胄, 權達手, 金千齡, 任熙載, 金詮, 李穆 등이 선발되었다.

11) 김종직의 문인은, 박선정의 앞책과 정경주의 『성종조 신진사류의 문학세계』(법인문화사, 1993) 등에 정리된 것을 따른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엘리트로 선발된 김종직의 문인 중 상당수는 당대에 출신한 신흥 사족 출신들이었으며 그 대부분은 경상도 출신이었다.¹²⁾ 이러한 점 때문에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은 ‘慶尙先輩黨’으로 지칭되기까지 하였다. 『성종실록』(15년 8월 6일)의 史臣 논평에는 “김종직은 경상도 사람이며, 博文하고, 문장을 잘 지으며 가르치기를 즐겼는데, 전후에 그에게서 수업한 자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경상도의 선비로서 조정에서 벼슬 사는 자들이 宗匠으로 추존하여, 스승은 제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는 제 스승을 칭찬하는 것이 사실보다 지나쳤는데, 조정안의 新進의 무리도 그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불쫓는 자가 많았다. 그 때 사람들이 이것을 비평하여 경상도 선배당이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이 경상도 선배당으로서의 절대적 지위는 경상도 지역의 동현이나 객관, 향교 등에 대한 기문 제작이 대부분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70여 편에 육박하는 15세기 후반 영남 지역의 기문 중에서 신숙주와 서거정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김종직과 그의 당여들의 것이다.¹³⁾

3. 15세기 후반 관각시의 성격과 김종직의 개성

잘 알려진 대로 김종직의 제자들은 성종조 신진사류의 핵심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 때문에 김종직이 신진사류의 영수로 추존되기도 하지만, 김

12) 세조대 검예문 문신으로 선발된 인원 중 권람의 아들인 권건, 朴仲孫의 손자인 박중영, 신숙주의 손자인 신종호와 신용개, 南在의 후손인 남근, 成抑의 후손인 성중엄, 曹頤文의 조카인 조위, 윤희의 외손녀인 이의무, 李原의 증손인 이의무, 이제현의 후손이며 박팽년의 외손자인 이원 등 명문가의 후손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새롭게 이쪽에서 성장하여 당대에 출신한 예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중 신종호와 신용개, 남근, 조위, 이의무, 이원 등이 김종직의 제자인데 이들 외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 출신의 신흥사족이다.

13) 신숙주의 것이 5편, 서거정의 것이 8편, 김종직의 것이 12편, 홍귀달의 것이 14편, 조위의 것이 6편, 채수의 것이 5편, 김일손의 것이 11편, 이륙의 것이 5편이다. 신숙주, 서거정 외에 김수온, 이석형, 성현 등이 1편씩 제작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50편이 모두 김종직과 그의 문하에서 제작된 것이나 영남 지역에서 이들이 누린 문학적 영향력이 절로 드러난다.

종직의 문학은 사람적 요소에 못지않게 관각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간 김종직의 문학에 나타나는 사람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관각문학적 요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김종직이 남긴 산문 중 상당수가 관각의 문자이거니와, 그의 한시 역시 상당수가 應製詩나 殿閣의 春帖子 등 관각시로 채워져 있다. 세조나 성종 대는 중요한 국가행사에서 御製詩를 내리고, 국가의 주요 문인들은 이 어 제시에 화답하여 시를 지어 올리는 궁중문학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였다. 김종직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던 것이다. 김종직은 당대에 선배인 서거정, 강희맹, 그리고 동년배 혹은 후학인 최숙정, 성현, 홍귀달 등 관각의 중심 인물들과 깊은 교분을 맺으면서 이들과 함께 관각문인으로 높은 위상을 점하였다.

이에 비하여 그의 제자 그룹은 신진사류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성종대 정치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때 김종직은 자신의 제자 그룹과 동일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 무렵 김종직의 제자 그룹인 李深源, 南孝溫, 金駟孫, 李宜茂, 李宗準 등이 문종의 비인 顯德王后的 복위와 정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盧思愼, 尹弼商, 한명회, 任元濬 등 세조의 공신 그룹에 대한 비판이 숨겨져 있다.¹⁴⁾ 그러나 김종직은 이들 공신 그룹과 친분관계가 소원하지 않았다. 김종직은 한명회의 狎鷗亭을 찬양하는 여러 편의 시를 바친 바 있으며 윤필상을 찬양하는 작품도 여러 편 지었다. 제자 이목이 윤필상을 비판하는 소를 올리면서 윤필상을 삶아 죽이면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라 한 일과 큰 대조가 된다. 김종직은 신숙주, 서거정 등과도 교분이 깊었다. 김종직은 권제, 권람, 권건을 칭송하면서 이들의 글이 신숙주, 최항, 강희맹, 이승소 등의 훈구대신들의 저작과 함께 써지 않고 영구히 전해질 것이라 하였다.¹⁵⁾ 또 신숙주의 문집에 붙인 서문에서도 높은 덕행과 문장을 칭송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후학인 자신을 신숙주가 이끌어준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서거정과도 친분이 깊어 그와 수창한 시가 매우 많으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우호적이며 비판적이지 않다.

14) 정경주, 앞의 책, 45-51면.

15) 김종직, <永嘉連魁集序>(『점필재집』 12-409면).

진술한 바와 같이 김종직은 사가독서제와 유사한 검예문에 선발된 이래 홍문관 수찬, 응교, 직제학, 부제학 등 핵심적인 관각문인의 직임을 두루 역임하였다. 또 승정원에서 동부승지, 좌부승지, 도승지를 차례로 지냈으니, 성종의 喉舌이 되었다. 이러한 관력은 김종직의 문재가 성종으로부터 크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홍문관 응교로 있을 때는 창경궁의 上樑文을 지어 올렸으며, 부승지로 있을 때에는 왕명에 의해 <環翠亭記>를 지어 바쳤다.¹⁶⁾ 성종은 당시 가장 널리 읽힌 『聯珠詩格』의 주해를 그에게 맡겼거나 또 성종이 邵康節의 시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자 그 주해를 김종직에게 부탁하였으니,¹⁷⁾ 김종직은 15세기 후반 으뜸가는 관각문인으로 자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김종직은 성종과 권세가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소간 뜻을 굽힌 일도 없지 않았다. 『성종실록』 14년(1483) 8월 16일 김종직의 도승지 임용에 대한 史臣의 논평은 매우 비판적이다. 김종직이 문장을 잘 짓기 때문에 특별히 知遇를 입어 도승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눈을 씻고 그 처신을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또 성종이 상중에 月山大君의 望遠亭에 시를 지어 내린 일을 김종직이 무방하다 한 것을 두고, 임금의 뜻에 아부한 예로 들고 있기까지 하다. 그의 卒記에는 이조참판으로 있으면서 건백하는 일이 없어 명망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다. 『성종실록』의 편수관 중에 김종직의 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직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신진사류들의 눈에는 김종직이 관각문인으로서 훈구세력의 이권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종직의 태도에 대해 김굉필, 홍유손 등은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 홍유손은 김종직에게 時事에 대해 建白하지 않으면서 爵祿을 취한다고 공박한 바 있다.¹⁸⁾ 특히 다음 일화는 김종직이 그들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달랐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종직이 이조참판이 되었을 때 건백하는

16) 이때 洪貴達, 金訥도 기문을 지어 바쳤으므로, 이 무렵 김종직과 홍귀달, 김훈이 대표적인 관각문인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7) 『성종실록』 14년 9월 16일과 『성종실록』 15년 6월 26일.

18) 남효온, 「師友名行錄」(『추강집』 16-137). 김종직의 답서 역시 이 기록에 보인다. 이하 김종직의 작품은 그의 문집에는 전하지 않는다.

일이 없자 김굉필은 이렇게 시를 지어 올렸다.

도는 겨울에 갓옷 입고 여름에 얼음물 마시는 것에 달려 있는데
 개면 다니고 비 오면 멈추는 것마다 어찌 다 온전하게 하리오
 난초가 시속을 좇으면 끝내 변하고 말리니
 소는 밭 갈고 말은 타는 동물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소.
 道在冬裘夏飲水, 齋行潦止豈全能。
 蘭如從俗終當變, 誰信牛耕馬可乘。

시의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李滉 역시 이 시에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도는 지극히 크므로 어느 곳 어느 때도 존재하지 않음이 없으니, 마치 여름에는 갓옷을 입고 겨울에는 갓옷을 입는 것과 같다. 군자는 출처에 있어 날이 개면 가고 비가 오면 멈추어 마땅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찌 일일이 그 절도에 맞출 수 있겠는가? 난초로 하여금 구차하게 여러 꽃 사이에 들어서 있게 한다면 끝내 향기로운 꽃이 변화하여 썩으로 바뀔 것이 필연적이다. 소는 밭을 갈 수 있고, 말은 탈 수 있다. 사물이 각기 본성을 좇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난초가 변하여 썩이 되는 것은 사물이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어찌 이 도가 도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대의라 하였다. 또 기구와 승구는 풍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도가 행해지지 않아도 숨겨지지는 않으니 時中의 뜻을 잃을 것이라 하였고, 마지막 구에 욕하고 꾸짖는 것이 너무 드러났다고 하였다.¹⁹⁾ 김종직은 모든 것을 도에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변화불변한 도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훈구세력의 이익을 좇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김종직은 이들과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본분을 넘어 벼슬이 높은 데 이르렀지만

19) 이창, <答李剛而(別紙)>(『퇴계집』 30-35면). 이 자료는 김영봉의 『김종직 시문학 연구』(이화, 2000)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임금을 바로잡고 풍속을 고치는 일 내 어찌 하리오?
 후배들이 나를 어리석다 비웃고 있지만
 구구한 세력과 이끝은 할 것이 아니라네
 分外官聯到伐冰, 匡君救俗我何能.
 從教後輩嘲迂拙, 勢利區區不足乘

이황은 이 시에 대해서 “불행히 본분을 넘어 벼슬이 갑자기 경대부에 이르렀지만 임금을 바로잡고 시속을 고치며 도를 행하는 책무를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우졸하기가 이와 같으니 자네와 같은 후배들이 조롱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그러나 구구하게 세도와 이익을 좇아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것과 같은 일은 나 또한 하지 않을 뿐이다”라 풀이하였다. 사실 김종직은 후배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사리사욕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의 심된다고 한 것이다. 김굉필 등 신진사류들의 당파성을 꾸짖은 것이다. 김굉필의 과격한 언사를 미워하여 김종직이 이렇게 답하였기 때문에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갈라졌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점에서 김종직은 이후의 신진사류들과 구분되는 전형적인 관각문인이라 할 수 있다.²¹⁾ 물론 관각문인이라 하더라도 大家로서의 개성은 서로 다르다. 성세를 맞은 세종대 집현전 신진문사들의 문학작품은 낙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富麗’와 ‘溫潤’, ‘豪宕’이 그 미학의 근저가 되고 있다.²²⁾ 세조대와 성종대 관각문학을 이끈 서거정과 성현의 한시에서 이 점이 잘 확인된다. 먼저 서거정의 시를 보인다.

잠간 개자 주렴에 햇살 들어 반짝이는데,

20) 남효은, <師友名行錄>(『추강집』 16-137면). 후대 남효은의 이러한 지적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奇大升은 <答龜巖書>(『高峯集』 권3)에서 스승을 섬길 때에는 면전에서 바른 대로 허물을 지적하여 직간하는 일도 없고 의문이 있으면 덮어 숨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논리로 김종직과 김굉필이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 하였고, 鄭經世 역시 <書奇高峯答龜巖書後>(『愚伏集』)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 하였다. 李衡祥도 <瓶窩隨筆>(『瓶窩全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21) 이가원의 『조선문학사』(태학사, 1995)에도 김종직을 관각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비」를 참고하기 바란다.

짧은 모자 홀적삼에 더위가 가시네.
 껍질 벗은 죽순은 비를 맞아 자라나고,
 지는 꽃은 힘없이 바람 따라 날아가네.
 오래도록 붓 버리고 이름을 감췄으니,
 시비를 일으키는 벼슬살이 벌써 싫어졌다네.
 고운 향로에 향이 스러질 때 잠이 막 깨니,
 손님은 오지 않았고 제비만 자주 오네.

小晴簾幕日暉暉 短帽輕衫暑氣微
 解籜有心仍雨長 落花無力受風飛
 久拵翰墨藏名姓 已厭簪纓惹是非
 寶鴨香殘初睡覺 客曾來少燕頻歸

서거정, <여름날에(夏日卽事)>(『국조시산』 권5)

조여름 무료함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지은 작품이다. 벼슬이 싫다 하였지만 그러한 마음이 본심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낼 뿐이다. 수련은 화려하고 함련은 공교롭지만, 높은 기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나른함과 무료함을 ‘부려’하게 드러낸 것이 오히려 이 작품의 장치다. 서거정의 또 다른 대표작 <봄날(春日)>(『국조시산』 권2)에서 “금빛은 버들에 들고 옥빛은 매화를 떠나는데, 작은 못의 봄물은 이끼보다 푸르네. 봄 시름과 봄 흥취는 어느 것이 깊은가? 제비도 오지 않고 꽃도 아직 피지 않았네(金入垂楊玉謝梅, 小池春水碧於苔. 春愁春興誰深淺, 燕子未來花未開)한 것도 다르지 않다. 화려함에 더하여 흥취로 인한 호탕함과 관각생활의 나른함을 읽을 수 있다.²³⁾

서거정 등 관각문인들의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부려’와 ‘호탕’의 미학은 관각문학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성과요, 후대에도 이러한 미감을 주는 작품들이 관각문인에게 애호되었다. 성현의 다음 작품이 그러하다.

23) 이 두 작품 모두 趙孟頫의 “春寒測測掩重門, 金鴨香殘火尙溫. 燕子不來花又落, 一庭風雨自黃昏.”의 영향이 크다. 문종이 이 시를 어필로 쓴 것이 전한다.

병풍 속에 베개 높이고 비단 휘장으로 가리니
 별원에 인적 없고 거문고 소리 벌써 끊겼네.
 상쾌한 기운이 발에 가득해 막 잠에서 깨니
 온 뜰에 내린 가랑비에 장미가 젖어 있네.

畫屏高枕掩羅幃 別院無人瑟已希.

爽氣滿簾新睡覺 一庭微雨濕薔薇.

성현, <비에 묶여, 청주의 동헌에 쓰다(滯雨題淸州東軒)>(『국조시산』 권2)

비록 감각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는 결코 다르지 않다. 한적한 여름날 설핏 낮잠에서 깨어나 비에 젖은 장미를 바라보고 있는 성현에게 세상사에 대한 고민은 없다. 서거정이 감각에서 모범으로 제작한 ‘운운’과 ‘부려’의 미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김종직이 감각에서 제작한 한시 역시 ‘부려’와 ‘운운’의 미감에 바탕한 것이 많다. 다만 단순한 화려함보다는 우아함과 호방함을 겸하였기에 ‘雅麗’, 혹은 ‘雄麗’를 지향하였다. 김종직이 서거정이나 성현처럼 같은 초여름을 배경으로 한 다음 김종직의 작품에서 화려에 옹혼을 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빗발이 차츰차츰 걷히는 듯한데
 여린 우레 아직도 높은 누대에 울린다.
 구름이 골짜기로 돌아드니 발에 어둠이 내리고
 바람이 연못을 스쳐 부니 샷자리가 서늘하구나.
 연꽃 향기 속에 개구리는 개골개골 울고
 해오라기 그림자 너머 버는 반짝반짝 윤이 난다.
 난간에 기대어 다시 두류산을 바라보니
 천길 봉우리는 옥룡이 솟은 듯하구나.
 雨脚看看取次收 輕雷猶自殷高樓
 雲歸洞穴簾旒暮 風颭池塘枕箜秋
 菌萐香中蛙閣閣 鷺(斯+鳥)影外稻油油

憑欄更向頭流望 千丈峯巒湧玉蚪

김종직, <제운루에서 쾌청한 6월 16일(齊雲樓快晴六月十六日)>(『점필재집』 12-291)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의 작품이다.²⁴⁾ 이 시의 함련과 경련은 서거정이나 성현의 시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이 있다. 그러나 서거정과 성현의 시가 화려하면서도 여린 데 비하여, 김종직의 시는 호방함을 겸하였다.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이 시를 “雄麗滔滔”라 평하였는데 화려함과 웅장함을 겸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미련에서 장부의 기상을 드러낸 것은 조선초 관각의 대가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종직의 대표작 중에는 이처럼 화려하면서도 엄중하거나 전아한 것을 겸한 것이 많다.²⁵⁾

김종직의 시에서 맛볼 수 있는 ‘雄麗’, 혹은 ‘雅麗’ 역시 관각문인들의 전형적인 미감이기도 하다. 관각문학의 진범을 확립한 宋의 歐陽脩는 문학을 둘로 나누면서 山林의 문학은 그 기운이 枯槁하고 臺閣의 문학은 그 기운이 溫潤하다 하였다. 그 후 14세기 후반에 산문가로 활약하였던 宋濂도 구양수의 이 논리를 받아들여 대각의 문장은 그 기운이 麗雄하고 산림의 문장은 그 기운이 枯槁하다고 하면서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하였다. 관각체는 富貴福澤의 기상이 있으며 태평을 분식하고 공덕을 가송하여 응제와 응수가 많으며, 雍容典雅와 平正淳實을 그 미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²⁶⁾ 김종직의 한시에서 태평을 분식하고 공덕을 가송하는

24) 『國朝詩刪』에는 이 작품이 <轟石樓雨後>로 되어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 咸陽郡 齊雲樓에 이 시가 실려 있으므로 문집의 것이 옳다고 하겠다.

25) 모든 운자에 모두 짐승의 뜻이 들은 글자를 넣는 演雅體라는 회작으로 되어 있는 <次李節度約東赴鎮韻>(『국조시산』 권5)은 함련과 미련이 화려하지만 미련에서 典重함을 드러내었기에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鴻麗嚴重”이라 하였다. 또 <寒食村家>(『국조시산』 권5)의 “아가위 앞에는 산비둘기 꾸꾸, 장다리꽃에는 나비가 나풀나풀(鳩鳴穀穀棲棠葉 蝶飛款款無菁花)” 역시 화려하지만 나른함 대신 단정함을 느낄 수 있기에 흥만중은 『소화시평』에서 ‘雅麗’라 평하였다.

26) 『중국대백과전서—중국문학』(중국대백과전서출판부, 1986)의 「大關體」 항목에서 石昌諭가 이렇게 적고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도 명 成化 연간 이후 태평을 누리게 됨에 따라 대각의 雍容한 작품이 많아졌다고 한다. 관각체의 미적 특질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작품이 상당수 있거니와, 관각에서 제작된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송렴이 이른 ‘麗雄’을 지향한 한 예로 위의 작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15세기 관각문학의 전개에서 15세기 전반은 호탕하면서도 화려한 ‘豪富’의 풍격이 선호되었다는 점이다. 서거정은 氣像論을 바탕으로 정도진, 하륜, 조준, 성석린, 이원, 자신의 외조부 권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대부분 ‘호부’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東人詩話』에서 증명하였다. 서거정은 신분적인 우월성에서 출발하는 기상의 높이가 화려함과 어우러진 ‘호부’의 미감이 이상적인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서거정은 자신은 화려함만 따랐고 높은 기상을 시작에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스스로 관각체의 특징을 ‘운운’보다 ‘호부’에 두었지만, 시작의 실제에서는 ‘호부’보다 송렴이 말한 ‘부려’에 가까워진 것이다. 허균은 국초의 시를 개관하면서 『惺叟詩話』에서 서거정의 시를 春容富艷, 혹은 渾重富麗라 평하였으며 홍만중 역시 『소화시평』에서 서거정이 평자들에게 고평 받지 못한 것은 富贍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때 김종직은 서거정이 이르지 못한 ‘豪’를 그의 시작에 구현하려 하였고 그 결과가 ‘호부’와 유사한 ‘麗雄’으로 귀착된 것이다. 앞서 본 서거정의 <春日>과 나란히 읽을 때 다음 작품은 화려함이 감쇄된 대신 엄중한 기상을 발휘하고 있다.

꽃을 날리고 버들을 가르며 강바람 부는데
 돛대는 흔들흔들 저녁 기러기를 등져 있네.
 한 조각 향수에 부질없이 기둥에 기대서니,
 흰 구름은 술 실은 배 위를 날아 지나네.
 吹花擘柳半江風 檣影搖搖背暮鴻
 一片鄉心空倚柱 白雲飛度酒船中

<제천정에서 지중추원사 송처관의 시에 차운하다(濟川亭次宋中樞處寬韻)>(『국조시산』 권2)

이 작품에 대하여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氣度が 弘厚하다”고 평하

였다. ‘기도’는 곧 기상이다. 김종직은 화려함에 기상을 더하려 하였다. 서거정의 <춘일>이 봄날의 나른함을 말하였다면 김종직의 이 작품은 엄정한 학자로서의 기상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김종직은 관각문인으로서 화려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호탕함을 겸하였는데, 이 점은 16세기 이후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학자들의 시적 특성으로 계승된다. 김종직의 제자인 鄭汝昌의 <두류산을 구경하고 화개현에 이르러 짓다(遊頭流山到花開縣作)>에서 “넋버들은 살랑살랑 가볍게 흔들리는데, 4월 화개현에 보리가 벌써 익었네. 두류산 천만봉을 살살이 보고 나서, 외로운 배로 다시 큰 강을 내려간다(風蒲獵獵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壘, 孤舟又下大江流)라 한 것이나, 李珣의 <비로봉에 올라(登毘盧峰)>에서 “지팡이를 끌고 높은 곳에 오르니, 사방에서 긴 바람이 불어오네. 푸른 하늘은 머리의 모자요, 푸른 바라는 손바닥의 술잔이라(曳杖陟崑崙, 長風四面來. 青天頭上冒, 碧海掌中杯)”, 宋時烈的 <金剛山>에서 “산과 구름이 함께 희어 구름과 산을 구별하기 어렵네. 구름이 돌아가고 산만 서 있으니, 일만 이천 봉우리로다(山與雲俱白, 雲山不辨容. 雲歸山獨立, 一萬二千峰)”에서 그 흉금의 크기와 성품의 호탕함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종직의 한시는 높은 기상을 바탕으로 하는 성리학적인 시풍의 선구로 평가할 수 있다.²⁷⁾

27) 다만 김종직 한시의 문예미가 서거정의 그것과 구별되는 개성은 이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서거정은 오랜 시절 관각에 몸담고 있으면서 귀양은 물론 외직으로도 나간 적이 없었기에, 시인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기이한 경험이 없었다. 그저 관각 생활에서 나온 생활 감정을 곱고도 운기 있게 그려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대표작으로 운위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일상생활의 나른함과 무료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 이주 출신인 김종직은 외직에 나가 있을 때가 많았기에 목민관으로서 觀風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 때문에 김종직의 한시에서 애민주의적 경향이나 東史와 東土에 대한 관심을 추출하여 사람문학적인 특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종직의 <東都樂府>(12-227면)나 <凝川竹枝曲>(12-207면), <允了作善山地理圖題十絕其上>(12-275면), <允了又作咸陽郡地圖題其上九絕>(12-275면) 등이 그러한 예로 설명될 수 있다. 또 김종직의 제자인 유호인의 <花山十歌>(『너계집』 15-128면)나 <咸陽瀟湘竹枝曲十絕>(15-108)이 김종직의 시정신을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조선은 소재로 한 악부시나 竹枝詞가 김종직과 그의 문도들에 의하여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다만 관풍의 의지를 드러낸 시가 김종직과 신진사류의 전유물은 아니다. 성현 역시 김종직의 <붕도악부>에 못지않은 많은 수의 紀俗詩와 歷史詩를 제작하고 있다. 15세기는 조선

4. 김종직 한시의 연원과 15세기 후반 문단에서의 영향

김종직의 한시가 서거정으로 대표되는 전대 관각문학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 웅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한담한 미감을 과시하게 되는 근원은 그가 黃庭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江西詩를 배웠기 때문이다.

김종직이 강서시를 배웠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 보인다. 그의 제자 김흔의 아들인 김안로는 김종직이 “늘 진사도와 황정견을 읽어 시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진부한 말이 없도록 하였다.”고 하였고,²⁸⁾ 허균은 『성수시화』에서 김종직의 시가 오로지 蘇軾과 黃庭堅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또 조선의 시학이 소식과 황정견을 위주로 하여 비록 김종직과 같은 大儒로도 역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세상에 이름 날리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찌꺼기를 빨아 비위를 썩게 하는 촌스러운 말을 만들 따름이니, 읽으면 염증이 날 정도라고 평한 바 있다.

김종직 스스로도 “갑자가 대아를 노래한 새로운 시를 얻으니, 이전에 강서종과만 찾았던 것이 후회가 되네(忽得新詩歌大雅, 悔前宗派覓江西)”라 하였고,²⁹⁾ “헌걸한 시격은 낭선이 가소롭고, 웅결한 시격은 산곡이 그림도다. (...) 종파도를 뒤에서 고치려 하니, 어찌 옆 사람의 독족을 기다리리오(寒乞笑浪仙, 雄奇慕山谷. (...) 追修宗派圖, 寧待旁人督)”³⁰⁾라 하여 황정견의 시를 높게 평가하였다. 실제 김종직의 시에서 황정견의 독특한 시어를 차용한 예는 상당수에 달한다.³¹⁾ 이와 함께 김종직의 시에서는 황정견의 시에서

의 국가 체제에 맞추어 지방 관아와 향교 등을 대규모로 신축, 혹은 증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곳에 붙인 기문은 대부분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당연히 서을 출신이든 지방 이족 출신이든 목민관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시를 지어 민물의 정황을 노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 지방을 오가면서 농촌을 배경으로 제작한 이러한 계열의 시는 그 미감이 ‘典雅’, ‘寒淡’, ‘嚴重’, ‘放遠’ 등으로 나타난다.

28) 김 혼, 「先執記」(『안락당집』 15-284면).

29) 김종직, <管山君再用前韻見寄復和>(12-285면).

30) 김종직, <管山復用前韻見寄次韻>(12-285면).

31) <寒夜戲書壁>에서 “차가운 담요에 脚婆도 동반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心兵이 작은 계급으로 일어날 수 있으라(脚婆不作寒氈伴, 況有心兵起小姬)”(12-244면)에서 라 하였는데 ‘가파’는 銅器에 끓은 물을 담아 이불 속에 넣어서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기구이며, ‘심병’은 色情을 이르는 말로, 황정견의 <戴詠暖足瓶>에서 “千金買脚婆, 夜夜垂天明”과 “小姬媛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황정건처럼 불교나 유교 경전 등 기존에 잘 쓰이지 않던 시어를 이용한 예도 제법 있으며,³²⁾ 황정건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스스로 해학적인 시어를 만들어 쓰기까지 한다.³³⁾ 김종직은 이러한 한시 작법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해학적인 맛을 주는 것이 제법 있다.

증약역에서 사흘 동안 비에 간헐는데
 무술일 밤중에는 한 소리 천둥이 울리네.
 옷 입고 관 쓰고 앉은 것은 사양치 않으나
 배고프고 춥고 목마름이 함께 오는 것 어찌하랴.
 보리 싹이 튼 것 참으로 위로가 되지만
 외기러기 날개 젖는 건 또한 애처롭네.
 내일 아침엔 말 위에서 복사꽃 살구꽃을 보리니

足臥 或能起心兵”라 한 것을 짐작한 것이다. 또 <送崔監察榮赴管州通判>(12-240)에서 “자삼과 정철로 감히 공을 말할 수 있으랴, 민신을 도와 살림이 바로 공의 책임이로세(紫蓼青鐵敢言功, 佐察嘸伸正叵公)”라 하였는데 紫蓼와 青鐵은 지방의 특산물로 황정건의 <送顧子敦赴河南>에서 “紫蓼可攜宜包貢, 青鐵無多莫鑄錢”이라 한 데서 온 말이다. <次少游表浴沫韻却寄>(12-326면)에서 “몸가짐은 겨우 병약한 사람 틈에 끼여 있을 만 하고, 세상 살아가기는 진실로 표범 무늬 하나를 훑쳐보는 것과 같네(持身纔足備三屏, 處世眞同竊一斑)”는 黃庭堅의 <次韻楊明叔> “匹士能光國, 三屏不滿隅”와 『晉書』 <王羲之傳>에서 대나무 무덤으로 표범을 보던 다만 한점 무늬를 볼 뿐이라는 一斑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가져온 것이다. 이 외에도 김종직의 시에서 황정건의 시구를 차용한 예는 상당수에 달하지만 더 이상 매겨하지는 않는다.

32) <兔毛寄兼善>(12-225면)에서는 “중산에 있는 의갈부를 잡아 가져와서, 공손히 동강도에 게 부처 주노라(縛得中山衣樹夫, 殷勤寄與董江都)”라 하였는데 그 발상이 한유의 <毛穎傳>에서 가져온 것이다. 『梅堂稿』에 수록되어 있는 <得嚴君書有感>(12-760면)은 『論語』, 『孟子』, 『中庸』, 『書經』 등의 용어로 점철되어 있다. 경전의 말을 시어로 구사하는 것은 杜甫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朱子가 비판한 것이다(『지봉유설』 권9).

33) 예를 들어 <初五日鹿巖山獲猪飲于江巖上品官及僧戒勤亦持酒至>(12-237면)에서 “녹암산 어귀에다 배를 대고서, 모두 함께 오장군을 쫓는다(餓船鹿巖口 共逐烏將軍)”라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烏將軍은 멧돼지를 이르는 말인데 그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종직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賀金山李郡守仁亨>(12-329면)에서 “처음에는 목거사에게 북을 비는 듯하더니, 짐차로 토사인에게 돈을 던져 주게 되었네(初如求木居士, 漸作撞錢土舍人)”라 하였는데 木居士는 古木이 자연적으로 사람 형체처럼 생긴 것을 寺刹에 안치해 둔 것인데 韓愈가 <題木居士>에서 “偶然題作木居士, 便有無窮求福人”이라 한 바 있다. 김종직은 이에 짝을 맞추어 ‘土舍人’라는 시어를 만들어내었다.

삼랑이 갈고로 재촉한 것보다 나를 듯하네.

增若驛中三日雨 戊戌夜半一聲雷

不辭衣服冠而坐 其奈飢寒渴併來

宿麥胚胎眞足慰 羈鴻霑濕亦堪哀

明朝馬上看桃杏 想勝三郎羯鼓催

김종직 <2월 24일 밤 크게 우레가 치는데 이때 이로 인하여 잡혀 있게 되어 이틀에 하루치를 먹고 냉방에서 자는데 옥천사또가 보내준 술도 또한 말랐다(二月二十四日夜大雷電時因留滯併日而食棲宿冷埃沃川守所饋酒亦渴)>(12-295면)

『禮記』 <玉藻>에 “거센 바람과 맹렬한 천둥과 심한 비가 있을 적에는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옷을 입고 冠을 쓰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한 말과 삼랑(唐玄宗의 小名)이 內庭의 복사꽃과 살구꽃이 머금은 것을 보고는羯鼓를 가져다가 스스로 春好光이란 곡조를 지어 한 곡을 치고 나서 보니, 복사꽃과 살구꽃이 모두 피었다라는 고사를 이용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험벽한 전고 구사 자체가 강서시의 한 특징이거니와, 수련부터 대를 하면서 ‘增若’이나 ‘戊戌’과 같이 시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합련에서도 助字를 여러 차례 구사한 것도 강서시풍의 한 증좌로 들 수 있다.

김종직은 관각문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거정 등 관각의 대가들이 지나치게 ‘富麗’ 일변도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겼고, 그 대안으로 황정건의 시를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직의 시는 황정건을 배워 화려하면서도 웅장함을 과시하였고, 또 황정건의 신기함을 추종하여 발달한 의경을 획득한 것도 많다. 김종직 시의 가장 큰 미적 특징으로 운위되는 寒淡 역시 인생의 비애와 우울한 서정이 주조를 이루는 강서시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김종직 시의 특징으로 인하여 李宜顯은 16세기 朴闇, 李荇, 朴訥, 鄭士龍, 盧守愼, 黃廷疇, 崔崑 등과 함께 대표적으로 황정건을 배운 인물로 김종직을 들고 있다.³⁴⁾ 여기서 16세기를 전후한 시기 강서시풍을 이끌었던

34) 이의현은 <題八家律選卷首> (『陶谷集』, 권26)에서 김종직이 박상, 이행, 박은, 정사룡,

박은과 이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김종직의 문도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 비슷한 시기 杜甫와 강서시를 조종으로 삼았다고 평가되는 申光漢 역시 신중호, 신용개 등과 종형제이다. 물론 김종직의 문인 중에도 강서시와 관련을 가진 인물이 상당수에 이른다. 조위, 유효인, 金孟性, 정희량, 홍언충, 신용개, 권오복, 김훈 등이 황정견과 강서시를 배웠다는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열풍을 두고 성현은 “지금 시를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李白은 太蕩하고, 杜甫는 太審하고, 蘇軾은 太雄하고, 陸游는 太豪하여 본받을 바는 오직 黃庭堅과 陳師道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살갓은 발라내고 오직 해골만을 남겨두어 양인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기상만 약해져 난삽기벽하거나 용열노둔하여 볼 것이 없다”고 하고 “대저 시문이 화려하면 화려함을 취하고 청담하면 청담함을 취하며 간고하면 간고함을 취하고 웅방하면 웅방함을 취하여 각기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스스로 법에 낮추어져서 어찌 매화와 대나무를 좋아한다고 하여 여러 꽃들을 버리며 箚瑟을 좋아한다고

노수신, 황정욱, 최립 등과 함께 소식에서 나와 황정견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한 바 있다.

- 35) 홍귀달의 <梅堂記>(12-43면)에는 조위가 황정견의 시를 홀로 좋아한다고 하였고 <寄許獻之>(『매계집』 16-296면)에서 “강서일파는 필력이 웅정하다(一派江兩筆力雄)”라 하여 강서시의 웅장한 기풍을 칭상한 바 있다. 유효인은 <黃山谷集跋>(『뇌계집』 15-187면)에는 황정견 시의 “雄奇迥健”한 풍격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김종직의 <金善源挽詞>(12-366면)에는 “진사도의 백 편 시는 진중하다 일컬어졌고, 동중서의 세 편의 책은 말이 참으로 순정하였지(師道百篇稱典重, 仲舒三策說眞醇)”라 하여 金孟性의 시가 진사도에 필진한다 하였다. 정희량은 홍귀달의 아들 홍언충에게 준 시 <次直卿韻>(『허암유집』 18-33면)에서 “천년 강서시는 오직 몇 사람뿐, 나머지는 구름처럼 어지럽게 흩어졌네(千載江西只數君, 紛紛餘子散如雲)”라 하였고 조위의 원시에도 “요즘의 시율이 황정견과 진사도에 필진하네(邇來詩律逼陳韓)”라 한 것으로 보아 정희량, 조위, 홍언충 등이 모두 강서시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희량 한시와 강서시풍과의 관계는 김남기, 「정희량 한시 연구」(『한국한시연구』 3집, 1995)에서 다룬 바 있다. 신용개 역시 <次曉發涼陽聯句>(『이요정집』 17-51면)에서 “평생 괴롭게 강서시를 배웠더니, 격격하여 도리어 업하의 조씨에게 부끄럽네(平生苦學江西律, 蹇澁還慙鄒下荀)”이라 하였다. 『戊午上禍錄』에는 홍유손의 시가 황정견과 유사하다는 평이 있다. 권오복도 황정견의 시를 즐겨 읽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영희 역시 황정견의 경지에 출입하였다고 적고 있다. 김훈은 성종의 명으로 황정견의 시를 역주하는 일을 부여받아 독서당에 있을 때 이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다른 일 때문에 마치지 못한 바 있거니와, 황정견의 시를 뽑아 아름다운 필사본을 만들어 가 장하였으며 젊어서 한유와 두보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고 만년에는 소식, 황정견, 왕안석, 진사도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하여 여러 음악을 다 멈추어버리겠는가. 이는 崇善子의 膠柱鼓瑟의 견해다. 송선자는 죽었지만 요란한 자들이 아직 멈추지 않으므로 문벌을 지어 세상에서 글을 짓는 것을 배우는 자를 깨우친다.”고 하였다.³⁶⁾ 김종직의 문도들이 모두 황정견, 진사도를 배운 병패를 지적한 것인데, 그 근원이 김종직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김종직은 두보과 소식의 시에도 뛰어났다. 김종직의 시에는 황정견보다 두보와 소식의 시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더욱 많다. 김종직이 문인들에게 직접 가르친 것은 주로 두보의 시학이었다. 『무오사화록』에 홍유손이 도보로 영남까지 가서 김종직을 배알하고 두시를 배웠으며 강흔 역시 그에게서 두시를 배웠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종직의 제자 중에는 두시를 배운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두보는 황정견, 진사도와 그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황정견이나 진사도 등의 강서시가 두보를 조(祖)로 하고 있거니와, 조선에서 황정견, 진사도를 배운 대가들도 두보의 시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소식의 시는 우리나라에서 늘 황정견과 병칭되고 또 시학의 연원을 논할 때 소식과 황정견을 함께 배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누구나 두보와 소식을 기본으로 하거니와, 특히 15세기 후반부터 여기에 황정견, 진사도까지 겸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였으며, 그러한 시단의 풍상을 이끌어간 것이 김종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김종직의 시는 두보를 배워 청신하고 한담한 당풍을 지향한 것과 소식, 황정견을 배워 신기함을 추종한 두 가지 성격이 혼효되어 있다. 다음 김종직의 대표작이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연히 선사사에 이르니
가을 든 술숲에 바위가 덩그렇네.
학은 신라의 우개를 뒤집고
용은 부처의 공을 차는구나.

36) 성현, <文變>(『허백당집』 14-533번). 임형택은 「조선전기의 사대부문학」(『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에서 송선자가 김종직을 가리킨다고 풀이한 바 있다.

가랑비에 증은 승복을 입고
찬 강에는 나그네가 배를 젓네.

외로운 구름 아래 서대초가
한들한들 언덕에 가득하네.

偶到仙槎寺 巖空松桂秋

鶴翻羅代蓋 龍蹴佛天毬

細雨僧縫衲 寒江客掉舟

孤雲書帶草 獵獵滿地頭

金宗直, <선사사에서(仙槎寺)>(『국조시산』 권3)

우연히 들른 선사사에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니 그 때문에 앙상한 바위의 뼈대가 드러나 있다.³⁷⁾ 이어 절의 특징적인 모습을 그렸는데 그 함의가 참으로 어렵다. ‘鶴蓋’는 학 모양의 수레 덮개를 이르는 말이므로, 절을 찾아온 화려한 수레의 휘장이 날아가는 학처럼 필력이는 모습을 형용한 말로 추정된다.³⁸⁾ 또 용이 부처의 공을 찬다는 말은 불당 안에 새겨진 용이 연등을 발로 찰 듯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蹴’과 ‘蹴’이라는 詩眼이 역동적인 심상을 만들어내었거니와 그 형용한 것이 기이하다.³⁹⁾

김중직이 한편으로 강서시풍을 추종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풍을 추종하였기에, 후대 김중직의 시에 대한 평가는 양자에 모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문인인 조위, 신용개, 정희량 등도 일부의 작품에서는 唐風이 구현되었다고 하고 일부의 작품에서는 황정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남효온, 이주처럼 당풍의 정통에 근접한 예도 있지만, 이들의 시도 순수한 당풍이라 하기는 어렵고 상당한 정도 강서시풍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신진 사류들은 사화를 겪으면서 우울한 서경과 냉소적인 어투, 현실에 대한 개탄

37) 이 시의 수련은 金敦中的 <宿樂安郡禪院> “우연히 산기슭의 절에 이르니, 향 연기 가득한 땅이 솟아 있구나偶到山邊寺, 香煙一室開)와 李奎報의 <醉遊下寧寺> “우연히 호반의 절에 이르니, 시원한 바람에 술이 깨네(偶到湖邊寺, 清風散酒醺)에서 나온 것임을 환눈에 확인할 수 있다.

38) 劉楨의 <魯都賦>에 “수레 뚜껑은 학과 같고 말은 뛰어노는 물고기 같다(蓋如飛鶴, 馬如遊魚).”라 한 것을 접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39) 허균의 『국조시산』 에는 함련은 기이하고 경련은 당시에 뵈진하다고 평하였다.

을 당풍보다는 강서시풍 혹은 송풍으로 형상화하기가 더욱 쉬웠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15세기 문단의 추이와 관련하여 김종직의 시세계가 갖는 위상을 고찰해보았다. 김종직은 대제학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문생들과 더불어 당대 문단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영남의 맹주가 되었다. 비록 후대에 김종직은 사림의 영수로 추존되었지만 오히려 관각문학의 진통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서거정 등 정통 관각문인들이 화려함만을 지향한 데 비하여, 그는 기상을 바탕으로 한 웅장함을 겸하여 후대 도학파의 기상 높은 시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시적 특질은 두보, 소식 외에 황정견을 새롭게 배움으로써 가능하였다. 또 그의 문생들 역시 상당 정도까지 황정견을 배우려 했다. 김종직의 시적 경향은 한편으로 16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강서시풍의 도래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
奇大升, 『高峯集』 .
김종직, 『점필재집』 .
남효은, 『추강집』 .
성 현, 『허백당집』 .
이 황, 『퇴계집』 .
이수광, 『지봉유설』 .
이의현, 『陶谷集』 .
李衡祥, 『瓶窩全書』 .
鄭經世, 『愚伏集』 .
허 균, 『국조시산』 .
홍만중, 『소화시평』 .
- 김영봉, 『김종직 시문학 연구』, 이회, 2000.
박선정, 『점필재 김종직 문학 연구』, 이우출판사, 1988.
이가원, 『조선문학사』, 태학사, 1995.
이수건, 『영남사람과의 형성』, 영남대출판부, 1979.
이종묵, 「사가독서체와 독서당에서의 문학활동」, 『한국한시연구』 8집, 한국한시학회, 2000.
_____,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임형택, 「조선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정경주, 『성종조 신진사류의 문학세계』, 법인문화사, 1993.

The transition of later 15th century's literary circle and
JeomPhilJae(佔畢齋) Kim Jong—Jik(金宗直)

Lee, Jong—mook

This paper inquire into the Kim Jong—Jik(金宗直)'s poetry under the literature of 15th century. Although he could not become a DaeJeHak(大提學), he and his followers were the focus of the literary world at that time. He succeeded to the tradition of GuanKak(館閣) literature as well as he was famous as a leader of Sa—Lim(士林) in later days. However many traditional GuanKak(館閣) poets like Seo Guh—Jeong(徐居正) pursuit thoroughly the splendidness, but he had the magnificence and it's spirit. His poetry is a model of high—spirited DoHakPa(道學派, moral philosophers)'s next generation. His poetic characteristic was derived from the research of Huang Ting—Jian(黃庭堅) beside Du Fu(杜甫) and Su Shi(蘇軾). His followers also tried to learn Huang Ting—Jian(黃庭堅)'s poetry. The poetic taste of Kim Jong—Jik(金宗直) can be regarded as the guidance of before and after 16th century's Ghang Seo poetical style(江西詩派).

Keywords : Kim Jong—Jik(金宗直), 15th century literature, Ghang Seo poetical style(江西詩派), GuanKak(館閣) literature, Huang Ting—Jian(黃庭堅)